

현장 수의사가 보는 호황 중에 허덕이는 양돈장들의 10가지 공통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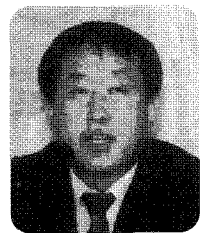
20 대 80의 원칙이 어김없이 양돈사업에도 존재하는 것 같다. 호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높은 수익을 올리는 농장은 전체 농장중 대략 20% 정도이다. 구조적으로 누구나 다 돼지를 잘 키운다면, 높은 모돈당 연간 이유두수에 높은 육성율을 보여 출하를 많이 한다면, 호황이 길지 못할 것이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인 것인가? 양돈을 하는 다른 나라가 돼지를 못 키우고 우리가 잘 키워서 우리 국민들 잘 먹고, 외국으로까지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텐데, 우리의 양돈산업 현실은 아직도 갈 길이 멀고 험하다.

호황 속에 허덕이는 양돈장들의 원인을 열 가지로 묶어 정리해본다.

1. 전문인력에 대한 투자와 사업 목표 관리가 안 된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현장에 젊고 유능한 기술자 공급이 안 된다. 후보돈 공급이 꾸준히 이루어져 산차관리가 되어야 높은 번식성적 뿐만 아니라 면역적으로도 안정된 돈군을 이루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 큰 걱정이다. 과거엔 단순히 농사였다고 하면, 이젠 애그리 비즈니스인 것이다. 고수익을 내는 생명과학 산업일진데, 떠돌이 일꾼에 의존하며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겠는가?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자. 자식들이 이어받고 싶은 사업으로 만들자.

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사업계획이다. 돼지 형제 소풍갈 때 숫자세뭇 무계획적으로 양돈을 하는 경우가 농장 중 80%는 된다고 본다. "그저 많이 나서 잘 크면 돈 많이 버는 거지 다른 거 있나"라고 말하는 분들을 종종 본다. 종돈, 사료, 시설, 사양관리, 방역, 인력, 자금, 판



신 현 덕 원장
신베트 동물병원

매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각 부문 별로 목표를 세우고, 실천을 하고, 확인해 보자. 잘한 것은 계속 유지하면 되고, 못한 것은 고쳐 나가자. 전문가의 컨설팅 서비스도 받고, 세미나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인터넷 정보도 얼마든지 참고할 수 있다.

2. 유전능력이 높은, 깨끗한 후보돈에 대한 투자가 문제다!

작금의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한 대표적 원인이다. 외국에서 전염병이 종돈을 따라 들어온 것과 종돈장의 위생관리도 문제겠지만, 80% 정도의 농장 현실을 한 번 들여다 보자.

종돈장을 이리 저리로 바꾼다. 지체가 불량하다. 발정이 안 온다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종돈 공급처가 바뀌어 돼지가 농장에 들어올 때마다 다양한 병원체가 수도 없는 항원형태를 갖고 기존돈군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항생제 클리닝도 하고 백신도 한다지만 방어가 어렵다. 별도의 격리수용 공간이 없다. 교배돈사로, 비육돈사로 곧바로 들어가니 환경적응도 순치도 없다. 별 일 없으면 다행이고 심심치 않게 전염병을 유발하는 진원지가 되고 만다. 농장 규모가 클수록 격리돈사도 필요하고 순치과정도 반드시 요구된다.

3. 사육시설에 대한 기본적 투자가 절실하다!

고수익을 내는 농장을 보면 시설 욕심이 틀림없이 많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저온건조, 고온다습하여 변화무쌍한 우리나라 환경은 양돈을 하기에는 무척 어려운 여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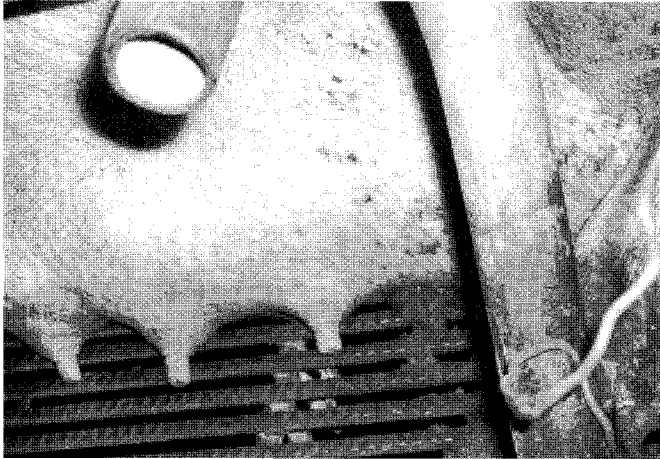
따라서 환경변화가 초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을 돼지에게 그대로 전가시키는 것은 수익성에 곧바로 반영된다. 돈사의 단열, 통제가능한 환기, 조절이 용이한 온습도 등이 중요하다. 윈치커텐 외겹으로만 겨울을 나고, 여름에는 폭폭 찌는 사육시설로는 고수익 양돈이 어렵다. 사육시설에 대한 투자에 유념하자. 불량한 사육시설이 가져다 주는 생산성 저하와 질병발생의 피해가 너무 크다. 계절 타는 양돈은 어렵다.

4. 번식돈 사양관리의 핵심마저도 실천을 안한다!

후보돈 도입과 번식돈의 전략적 도태를 통한 갱신 계획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다. 연간 35~40%의 모돈 갱신을 월별로, 분기별로 목표를 세우자. 호황기에 불량한 모돈을 다수 보유하면서 돈군흐름이 불량해지는 경우는 화를 불러오는 원인이 되니 조심하자.

체평점 관리(BCS)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BCS관리가 불량하면 번식성적은 당연히 저하되고, 도태율도 높아지며, 연산성까지도 나빠진다. 모돈의 평균산차가 낮아져 결국은 전염병에 쉽게 도전을 받는 돈군이 되는 것이니 BCS 관리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모돈 개체기록부를 잘 기록하고, 임신주령에 따라 매주 1회씩 BCS를 조절해 나가자. 농장의 책임자급이 직접 관리를 해야한다. 6개월만 해보면 번식성적의 개선이 눈에 띈 것임을 확신한다. 비생산일수 관리 또한 중요하다. 문제돈에 대한 발견과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지난 6개월간 다양한 원인에 의해 무유증 피해가 컸다.

5. 번식돈 면역억제 요인 제거와 철저한 백신접종이 중요하다!

2004년 가을부터 올 해 3월까지 전국적으로 나타난 번식장애(유산, 사산, 조산, 무유증, 재발정 등)로 인한 피해는 이유두수(PSY) 2~3두를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원인을 분석해 보면 작년 여름의 폭염으로 인한 번식돈의 스트레스와 호르몬 불균형을 들 수 있다. 파보백신 접종 효과가 임신말기까지 지속되지 않은 농장이 많았다.

여전히 PRRS, 써코바이러스 감염증의 유행도 큰 몫을 차지했다. 뇌심근염바이러스 감염증(EMC) 진단을 받은 농장도 많았다. 다수의 오일백신을 임신말기에 여러 번 접종하는 과정에서 부작용도 발견되었다.

특이할 만한 것은 전년도 5월부터 10월경까지 사료·급이라인 소독(예:살모제로)과 곰팡이독소 흡착제(예:마이코픽스 플러스)를 정기적으로 실행한 농장들에서 번식성적이 우수한 것을 보면, 농장내 벌크빈부터 급이기까지의 곰팡이·세균 오염상태가 문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6. PMWS, PRDC 피해가 여전하다!

전문가가 진단하고 수립해주는 백신접종 프로그램, 투약 및 위생소독 프로그램과 마텍의 20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필요한데, 단지 투약 프로그램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 수의사들의 의견을 따라보자. 혈청검사를 통한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농장내 복합감염 상태의 변화와 발병시기에 대한 확인과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

7. PED,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살모넬라 감염증, 회장염이 증가한다!

PED에 대한 몇 가지 백신이 개발되었으나 효과는 상재성으로 재발하는 농장에서 제한적이었다. 임상증상으로 볼 때는 PED로 의심되었으나 실험실 진단결과로는 음성인 사례가 여러 건 있어 신종 바이러스성 설사병의 출현을 의심하고 있다.

신속진단 키트가 보급되면서 어린 자돈의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쉽게 현장에서 여러 건 진단하여 피해를 줄인 경우도 있었다. 사료내 첨가약제의 수와 종류가 제한되고, PCV2, PRRSV가 확산되면서 복합감염 형태로 살모넬라 감염증, 회장염이 증가하고 있다. 설사병을 달고 사는 농장은 그만큼 돈이 새고 있다고 보면 된다.

8. 방역의식이 약하다!

동네마다 양돈인들 끼리의 모임도 많다. 약속이 있든 없든 농장을 방문하는 출입자 수가 많다. 사료와 약품의 영업사원들, 심지어 수의사도 여기 저기서 오고, 분뇨차, 사료차, 출하차



● 사료내 첨가약제의 수와 종류가 제한되고, PCV2, PRRSV가 확산되면서 복합감염 형태로 살모넬라 감염증, 회장염이 증가하고 있다. <자료사진>



● 포유자돈의 설사병은 병원체에 의한 것과 면역성 결여, 환경적인 스트레스 등에 의해서 발생한다. <자료사진>

량이 빈번하게 드나든다. 옆 농장의 개도 오고, 까치도 날라든다. 쥐가 들끓고, 파리도 많다. 양돈 밀집지역 일수록 공동 방역체제 개발과 유지가 더욱 중요하다.

저수익 농장일수록 돈사·돈방 수세소독이 안된다. 분뇨처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이다. 농장내 병원체 수가 축적되어 일축즉발의 위기상황을 자초하고 있다.

돈사마다 물탱크를 설치하고 투약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질병 조기억제도 가능하고, HACCP 관리 차원에서도 아주 유용하다. 사료내 약제투약은 문제점이 많기 때문이다.

9. 신기술정보 습득과 적용에 관심이 없다!

협회나 양돈연구회, 조합 그리고 사료업체 및 동물약품업체 등에서 실시하는 세미나에 참석하자.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농장에서 문제되는 점을 발굴하고, 전문 컨설턴트와 상담해보자.

예를 들어 모든 새벽 이유 방법이다. 현재 여러 농장에서 일출 2시간 전에 이유를 실

시하고 있는데 분만을, 산자수 향상에서는 효과가 아주 좋다. 아주 우수한 백신들이 많이 개발되어있는데, 많은 농장이 정보를 몰라 구닥다리 백신접종을 고집하며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10. HACCP, 양돈자조금제도 등 사회적 공헌에 함께 노력하자!

국민들에게 고품질 위생돈육을 공급하여 건강에 이바지하는 것이 양돈인의 사명일 것이다.

생산자로서 돈육의 안전성 확보는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고, 돈육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고 계속 사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연구개발과 정책에 투자하여 양돈인은 물론 관련 산업 참여자 모두가 윈-윈해야 한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참여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다.

수익을 내지 못하는 양돈장의 운명은 불 보듯 뻔하다. 생각을 바꾸고 변혁을 꿈꾸자. 전문가를 만나고 하나씩 바뀌어나가다 보면 수익이라는 파란 불이 켜질 것이다. **양돈**